

“제 나이 78살,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서양화가 김준호 화업 60년 기획전

토크쇼서 광주 관객 만난 배우 박정자

“연기인생 전환점 된 ‘위기의 여자’

작은 용기로 주연 배우역 맡아”

“연극 살리려면 소극장 응원 필요”

동명동 씨어터연바람 내달 30일까지

‘오색빛깔, 오색마당’ 프로그램

“제 나이가 올해로 78세,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한국 연극계의 대모’ 배우 박정자가 지난 25일 동구 동명동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늙은 무대보다 관객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소극장이 좋다”는 박씨는 “연극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는데도 지역에서 이렇듯 소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용기를 북돋아줬다. 그는 이어 “서울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순수예술’ 연극을 살리려면 관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은 푸른연극마음이 주최하는 소극장 연극축제 ‘제3회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 중 ‘오색빛깔, 오색마당’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날 콘서트는 박씨가 3년 전 제주도에서 이당급 푸른연극마을 대표와 했던 약속을 지킨 공연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소극장 연극제를 응원하기 위해 적은 출연료를 받고도 흔쾌히 광주를 찾았다.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한 박씨는 ‘피의 결혼’, ‘위기의 여자’, ‘신의 아그네스’ 등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 이해랑연극상 등을 수상하고 한국연극배우협회 부회장,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박씨는 “오늘은 연극 배우로서의 박정자가 아니라 그냥 토크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처럼 수수하게 입고 나왔습니다”고 했다. 그 말처럼 이날 무대에 선 박씨는 ‘국보급 여배우’ 보다는 동네에서 한번 쯤 만났을 법한 친근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씨의 목소리는 50여년 동안 한 해도 쉬지 않고 이어 왔던 연기자로서의 삶이 묻어나오듯 묵직



배우 박정자(오른쪽)가 지난 25일 씨어터연바람에서 열린 토크쇼 중 축석 낭독극 무대에 오른 관객 참여자에게 연기 지도를 하고 있다.

한 울림이 있었다.

이날 박씨는 11살 터울의 오빠 박상호 영화감독 덕에 어려서부터 크고 작은 연극 무대를 자주 접해 오다 이화여대 문리대 연극부에 들어간 일, 동아방송 전속성우를 맡았던 일 등을 풀어냈다.

“인생은 ‘견디는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 때문인지 늘 나이 든 할머니 같은 단역, 노역만 계속 맡아 왔지만, 단역이든 주연이든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기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 지금의 박정자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씨는 또 관객들이 자기 자신에게 용기 있는 삶을 가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1986년 연극 ‘위기의 여자’ 주연을 맡게 된 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연극은 동아연극상, 극평론가상 등 상을 휩쓸며 그녀를 스타로 올려놓은 작품이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자기 PR을 확실하게 해야 해요. 어느날 임영웅 극단 산울림 대표에게 부탁을 받았는데, ‘위기의 여자’ 주연을 맡을 여배우를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자는 안

되나요?”라고 했죠(웃음). 임 대표는 처음에는 박정자가 ‘위기’와 거리가 멀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제게 주연을 맡겼어요. 그 덕에 전 단역·노역 전문 배우라는 이미지를 깨고 나올 수 있었어요.”

콘서트 마지막 순서는 미리 나눠준 ‘햄릿’ 등 연극 대본을 관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낭독하는 시간이었다. 관객들은 처음엔 무대에 서는 것도 어색해 했으나, 박씨의 지도에 따라 10여 줄의 대사를 힘있게 읽으며 즐거워했고 다른 관객들은 용기를 내 무대에 오른 참여자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오색빛깔, 오색마당’ 프로그램은 다음달 30일까지 계속된다. 부산 극단 시나위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을 심리적인 이미지로 구축한 ‘뿔’ (11월 1-2일)을 선보이고, 청주 극단 늘품은 노회경 작가의 동명 드라마 작품을 극으로 만든 ‘엄마의 치자꽃’ (11월 8-9일)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또 푸른연극마을의 2인극 ‘육주’도 11월 22-30일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 2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4월의나주’

11월15일까지 나주 나빌레라센터

1970년대작부터 최근작 24점 전시

올해 여든 한살인 김준호 화백은 지금도 시간이 날 때면 스케치북을 들고 야외로 나간다.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바라본 풍경과, 그 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화폭에 담아내는 방식을 그는 평생 지켜왔다. 그는 지금도 어김없이 하루 5-6시간씩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린다.

서양화가 김준호 화백의 60년 작업 세계를 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1월15일까지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나주시 원로작가 초대전 김준호 화업 60년’전은 나주시의 초청을 받아 고향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김 작가는 1970년대 중반부터 근작까지 자신의 대표작 24점을 전시한다. 풍경화와 정물화, 인물화 등을 포함한 이번 초대전을 준비하며 새롭게 작업한 4월의 나주 풍경 작품도 선보인다. 전시작 중 풍토로 세밀하게 드로잉한 ‘500년 금강송’ 등의 작품에선 작가의 만만찮은 내공이 느껴지며 1000호가 넘는 금강산 풍경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광주사범학교에 들어가 미술을 공부한 김 화백은 교사가 됐지만 “남들보다 뒤늦게 붓을 잡았다는 생각이 온통 그림에 마음이 가 있었고 결국 그림에 매진하기 위해 교사직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13년 교직 생활과 입시 학원 운영을 제외하고 줄곧 전업작가로 활동해온 그에게 그림 작업과 생활을 병행하는 건 녹록치 않은 일이었지만 항상 초

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1986년 직장암에 걸린 후에도 그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투병중에도 그는 한라산을 2번이나 종주하고 5년간 무등산을 살살이 훑으며 풍경들을 그려나갔다.

김 작가는 금강산이 개방된 후 1998년 현장삼을 처음 밟은 지역 작가이기도 하다. 황홀한 금강산의 자태를 눈에 담기 바쁘고, 사진 촬영하느라 정신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금강산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했다. ‘현장 사생’을 중요시 하는 그는 어렵사리 얻은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월출산을 수차례 찾아 스케치하며 단련을 했고, 힘든 여건에서 그린 현장스케치를 바탕으로 광주에서 금강산 대작전을 열어 호응을 얻었다.

김 화백은 자신의 작업이 “한국의 서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서해의 겨울 풍경에서, 섬진강의 가을에서, 나주 금천의 봄날 모습 등 자연에서 얻어지는 서정성이 돋보이는 풍경 작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정미’에 천착하다 보니 결국 다양한 풍위를 보여주는 묵련, 매화, 동백 등 ‘꽃’과 가까워졌고 그 중에서도 ‘동백’은 그가 수십년째 붙잡고 있는 화두가 됐다. 1000호가 넘는 화폭에 동백꽃을 사실적으로 그려나가는 건 6개월이 걸리는 지리한 여정이지만 그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소재로 인물과 동백을 함께 그려넣은 ‘동백 아가씨’ 시리즈는 그가 앞으로 계속해 나갈 작업이기도 하다.

광주사범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김 화백은 지금까지 23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목우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여류서예가회 회원전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은은한 묵향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광주·전남여류서예가회(회장 이옥자) 회원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9번째 회원전인 이번 전시에서 참가자들은 ‘논어’, ‘채근담’, 이규보의 ‘하일(夏日)’, 김시습의 ‘유객(有客)’, 도연명의 ‘인생여기(人生如寄)’, 퇴계 이황의 시, 김남조의 시 ‘너를 위하여’ 등 선현들의 작품 가운데 작가들이 마음에 담아둔 다양한 글귀를 자신만의 한글·한문 서예 작품으로 풀어내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전남도미술대전, 광주시미술대전

등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심사위원을 지내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성 서예인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광주·전남여류서예가회는 지난 2007년 대동갤러리에서 창립전을 연 이후 매년 한 차례씩 회원전을 개최, 1년의 성과를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이옥자 회장은 두보의 ‘추흥(秋興)’(사진)중 두번째 수를 한문 서예로 선보이며 역대 회장을 역임한 류봉자·이점숙·임경초·강영화 회원을 비롯해 김성순·김은선·박미선·안정숙·이명자·이춘금·장미숙·정순남·조효순·이기숙·서란 회원 등이 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문화재단 30~40대 여성 문화예술교육 ‘지영씨의 인생부록’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얻은 모티브를 토대로 30~40대 여성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출산과 육아로 인생 전환기를 맞은 여성들을 위해 ‘2019 지영씨의 인생부록’을 마련했다. 생애 번곡점을 맞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삶의 방향성에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수립된 광주시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중 생애전환형 문화예술교육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심리상담 워크숍, 인문학 강의,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기(‘82년생 김지영’), 삶의 의미를 찾는 이력서 쓰기, 그룹 인터뷰 등이 포함돼 있으며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11월 5일부터 21일까지(매주 화·목 오전 10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6번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1월 2일까지 광주문화예술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친구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문의 및 예약 ☎ (062)221-4101~3, 228-8000